

돛자리 '음악 피크닉' 골라서 즐기세요

8월 18~19일 'ACC월드뮤직페스티벌'

예멘 블루스·라치바 간티바
김태우·성민제·알리·DJ KOO...
콜롬비아 등 10개국 13개팀 참여

벼룩시장 예술품 판매·드럼 워크숍
31일까지 시민 밴드 12팀 모집



라치바 간티바

'푸른 잔디밭에 돛자리 깔고 즐기는 음악 피크닉.'
지난 2010년 첫 선을 보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광주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아프리카, 남미 등 낯선 세계 각국의 음악들은 특별한 즐거움이었고 무엇보다 야외 음악 축제가 거의 없던 시절, 곳곳에 돛자리를 펴고 앉아 음악을 나누며 음악을 관람하는 풍경은 생소했지만 흥미로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하는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이 올해도 시민들을 찾아온다.

오는 8월18~19일(오후 3시~밤12시) 전당 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덴마크, 콜롬비아 등 10개국 13개팀이 참여한다. 예술감독은 지난 2010년부터 페스티벌을 이끌었던 인재진씨가 맡았다.

해외 출연진으로는 아랍 전통 음악에 락앤롤, 재즈, 블루스 사운드를 입히는 예멘 블루스(Yemen Blues)가 눈길을 끈다. 예멘의 유대교와 무슬림의 전통 사운드에 말보, 펑크, 재즈 등을 입힌 독특한 음악을 선보이는 그룹으로 미국 대표 월드뮤직페스티벌인 글로버페스트 2016 헤드라이너로 참여했다.

또 신나는 콜롬비아 카니발 음악을 선보이는 라치바 간티바(La Chiva Gantiva), 재즈·아프로비트·전자음악그룹인 덴마크의 칼라하(Kalaha), 전세계 타악기를 총망라하여 연주하는 동남아 타악 그룹 아세아나 퍼커션 유닛(Aseana Percussion Unit) 등이 눈에 띈다.

국내 출연진도 눈길을 끈다. 'Night of soul'이라는 제목으로 참여하는 가수 김태우는 케이팝에 재즈를 접목시킨 다양한 곡을 재즈 뮤지션들과 선보인다.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무대도 눈길을 끈다. 만16세에 세계적 권위의 슈페르거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를 석권한 베이스리스트 성민제, 프랑크 시나트라 빅밴드 수석 피아니스트로 활동한 재즈피아니스트 조운성과 폭발적 가창력의 가수 알리가 깜짝 트리오프로 참여한다.

드라마 '아일랜드' 삽입곡 '서쪽 하늘'로 유명한 밴드 '두번째 달'과 국립창극단원 김준수의 무대도 눈길을 끈다. 이들은 판소리 '춘향가'를 새롭게 해석할 예정이다.

월드뮤직 전문가 싱어송라이터 하림도 출연하며 가수 이난영의 딸인 '필리스터즈' 김민자와 그녀의 남편인 체



김태우



DJ KOO



예멘 블루스

코 출신 드러머 타미키이 함께하는 특별 공연과 다큐멘터리 상영(8월17일)도 눈길을 끈다.

또 '클론' 활동 이후 일렉트로닉 음악 전도사로 변신한 DJ KOO는 흥겨운 클럽뮤직으로 축제 밤의 열기를 달굴 예정이다.

ACC 개관 후 처음 열리는 페스티벌답게 올해 축제 무대는 전당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푸른 잔디밭이 인상적인 하늘마당(하늘 무대), 예술극장 야외무대(바람 무대)를 메인 스테이지로 활용하며 5·18 광장에는 '반디무대'를 마련했다.

'반디무대'는 일반 시민 음악가와 밴드 무대로 꾸며진다.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음원 심사 등을 거쳐 12개팀이 무대에 오르게 된다.

청년플리마켓협동조합 '플리마켓'과 함께 운영하는 벼룩시장에서는 특색있는 예술상품을 판매하며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그밖에 '아세아나 퍼커션 유닛'이 진행하는 드럼 워크숍을 진행하며 필리핀 댄스팀 '돈주앙'과 광주 지역 댄스학원이 함께 색다른 무대를 선보인다.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공연 일자별 출연 뮤지션을 확인할 수 있다. 무료 공연. 문의 062-601-40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계 조각·장식품 박물관' 시낭송 콘서트

27일 노래 공연도 진행

전세계 조각, 장식품 수천점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있는 '세계조각·장식품 박물관'이 시낭송 콘서트를 마련한다. 27일 오후 6시부터 '시·음악·연주와 함께 하는 금남로 연가'를 진행한다.

'세계조각·장식품 박물관'이 주최하고 광주 서구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김정희 시인이 기획을 맡아 시낭송·노래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김 시인이 들려주는 자작시 '마랑, 그 푸른 사랑' 시낭송을 시작으로 이어 김미혜씨가 가곡 '얼굴'(신귀복 곡)을 부른다. 김정숙씨는 '밤바람 속으로'(나희덕)를, 박애정씨는 '무심에 관하여'(허

형만, 김미혜씨는 '낙화'(이형기)를 낭송한다. 이외에도 '청포도'(이육사·유영숙 낭송), '행복'(유치환·임희자 낭송), '수선화에게(정호승·고영화 낭송), '산유화'(김소월·유해성 낭송) 등을 들려준다.

시낭송 중간중간 조우상씨가 '고독한 양치기, 철새는 날아가고' 펜플룻 연주, 서구문화원 문화나눔 봉사단이 '백만송이 장미' 우쿠렐레 연주를 펼치며 운치를 더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는 전권희씨가 참여해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한계령'을 다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62-222-007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 참여 놀이' 공연

내일 6세 이상 입장 가능

국립광주박물관이 오는 23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어린이 참여 놀이-BOX BOX'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이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만 집중하는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며 놀 수 있는 놀이와 연극을 접목했다.

두 놀이박사들과 관람객들이 팀을 나눠 놀이대결을 펼치는 참여 형식으로 꾸

며진다.

공연을 진행하는 'JK 키즈 엔터'는 '오즈를 찾아서', 'EBS 방구대장 뽀롱이' 등 다양한 연극·연출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무료로 진행되며 6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다.

홈페이지(gwangju.museum.go.kr)를 통해 사전에 신청해야한다. 문의 062-570-702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영화와 함께하는 국악·클래식 공연



내일 광산문화회관 상주단체 페스티벌 '광산시네마콘서트'

광주 광산구는 오는 23일 오후 5시 광산문화회관에서 상주단체 페스티벌 '광산시네마콘서트'를 개최한다.

'광산시네마콘서트'는 친근한 영화와 퓨전국악, 연극, 클래식 공연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광산문화회관 상주 단체인 퓨전국악연구회 아이리사와 극단 까치들, 광주신포니에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준비했다.

공연은 드라마 '아이리스' 한 장면인

총격전 재현으로 시작한다. 이어 '아이리스' 삽입곡 '잊지말아요', 드라마 '태산시네마콘서트'를 개최한다.

'광산시네마콘서트'는 친근한 영화와 퓨전국악, 연극, 클래식 공연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광산문화회관 상주 단체인 퓨전국악연구회 아이리사와 극단 까치들, 광주신포니에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준비했다.

공연은 드라마 '아이리스' 한 장면인

매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낭송 콘서트

시·음악·연주와 함께하는 『금남로 연가』

- 일시 | 2016년 7월 27일 오후6시
- 장소 | 세계조각·장식품박물관
- 주최 | 세계조각·장식품박물관
- 주관 | 광주 서구문화원(기획:김정희 시인)

세계 조각·장식품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로1번 1층)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제5회 2016 청소년축제

The 5th Youth Festival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youngkwangju>

2016. 7. 23 (토) 10:00~19: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옛 도청 분수대광장)

No Bullying, Yes Bling!

- ▶대학선택을 위한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
- ▶진로 탐색 및 적성 상담
- ▶학교폭력 상담
- ▶신나는 체험활동관
- ▶대학생 인기 댄스, 밴드 공연
- ▶경품 이벤트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교육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GKL사회공헌재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렛츠런파크, 동강대학교